

제조업 기지가 떠나

광주 첨단산단·전남 대불산단 등
조선업·철강업 공장 가동률 증가
자동차·가전 수출에도 탄력 붙어
거리두기에 자영업 불황은 여전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영업계와 달리 광주·전남지역 제조 산업현장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불황을 벗어나지 못했던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모처럼 숨이 멎지 않게 가동하고, 가동과 생산을 반복하는 등 부침을 겪었던 광주산업계도 자동차와 가전을 필두로 수출·생산에 탄력이 붙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자영업계의 불황은 여전한 데다, 반도체 수급난을 겪는 자동차업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로 남는다.

19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전남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586만36MWh로, 지난해 같은 분기(562만MWh)보다 4.2%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공장이 잇따라 멈춰 서면서 전력 판매량이 7% 감소했던 것과 달리, 올해 1월 전년 대비 0.3% 증가한 이후 2월(5.5%)과 3월(6.9%)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역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도 울며 웃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1년 주요국가산업단지산업동향'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주첨단·광양·대불·여수 국가산단의 누계 생산액은 21조6791억원으로, 1년 전 19조4900억원보다 무려 2조1891억원(11.2%)이 늘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관련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광주첨단산단은 생산액이 1조3815억원에서 1조6750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조선업계의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존폐기로에 서있던 영암 대불산단도 선박 발주가 늘면서 생산액이 3964억원에서 4512억원으로 13.8%나 올랐다. 이밖에 여수 12.3%(13조7360억원→15조4247억원), 광양 3.8%(3조9761억원→4조1281억원) 등 지역 산단의 생산이 늘고 있다.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광주첨단산단의 가동률은 전년(78.1%) 대비 8.5%포인트 증가한 86.6%를 기록했고, 대불산단도 67.4%에서 76.8%로 9.4%포인트 증가했다.

이처럼 지역 산업계가 활력을 되찾은 것은 수출 확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전남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6.2% 증가한 44억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봐도 수출은 전년 대비 32.7%나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91.3%나 증가한 것은 물론, 자동차 부품이 무려 525% 증가하는 등 수출장비가 전년 대비 95.6%나 늘었다. 냉장고와 에어컨이 각각 104%, 102.8% 증가하는 등 가전제품 수출은 총 98.8% 늘었으며, 타이어 역시 108.8% 증가했다.

전남은 선박수출이 지난해보다 2만3992나 급

부처님 오신 날 ... "은 누리에 자비를"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인 19일, 광주 서구 무각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진행된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들이 아기부처에 물을 부어 씻기는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증하면서 수송장비 수출이 9805.4%나 올랐고, 또 다른 주력 산업인 철강제품 역시 234.4% 증가했다. 지난해 직격탄을 맞았던 석유제품과 화공품도 각각 66.4%, 61.1% 증가하는 등 광주·전남 산업계가 불황을 벗어나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모처럼 지역 산업계가 위기를 벗어나 활기를 되찾아가는 모습이다"며 "다만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수출에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코로나19 재유행도 여전히 불안요소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와 달리 자영업 등 서비스업 부문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생산지수는 회복세가 더

디기만 하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서비스업 생산(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광주는 '보합' 전남은 '감소'를 나타냈다. 광주 서비스업 생산액은 지난해 초부터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다가 올해 1분기 '보합'을 나타냈다. 전남은 5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액 감소가 가장 심했다. 올 1분기 이 업종 생산액 감소율은 광주 13.9%·전남 15.8%로 집계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울산과기대 매년 65명 뽑는데 한전공대 지역인재 전형 없다

"향후에도 도입 고려 안해"

내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안에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과 교육부장관 보고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학 측이 현재, 향후에도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보이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이 마련한 신입생 모집 요강은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에 따라 산자부·교육부 승인 및 보고 절차를 밟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현재 신입생 모집 요강 승인·보고 절차의 막바지 단계로 조만간 첫 신입생 모집 요강이 공개된다. 해당 안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대 측이 2023학년도 등 향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학 정상 개교를 위한 지난 3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줄기찬 반대와 지역인재 전형 도입 반대 기류를 감안, 학교 측이 지역인재 전형 도입을 2022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에서는 배제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했다. 이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자체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과 인재의 확보'와 '국토(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양대 목표를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혁재 전남도의원(목포4)은 지난 4월 도정질문에서 "지역인재전형은 보수야당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 현

재의 기술어린 지방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동등한 기회를 지방 학생들에게 주자는 취지"라며 "지역인재전형을 도입하지 않고 교육 불평등 여건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에 반영하고, 정상 개교와 정부·지자체 운영비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것도 전남이라는 점도 지역인재 전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같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지역인재 전형 정원을 65명으로 정해둔 것보다도 비교하며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원 상당수가 재정 형편이 열악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2022년부터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대학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너지공대 측이 지역인재 도입을 조속히 결정하도록 전남도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입장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8일 전남도청을 찾은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총장에게 "지역인재 전형 도입"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서 "지역 우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 관계자는 "지역 우수학생 모집을 위해 다방면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인재 전형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유흥시설 운영자·종사자 주 1차례 진단검사

전남도 행정명령... 거부 땀 구상권
광주는 학원·교습소 등 방역 나서

전남도는 19일 "전남지역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다음달 15일까지 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근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조치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감소세로 안정되고 있으나, 업태 특성상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임을 감안해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날까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61명에 이른다. 도내 유흥시설 5종 운

영자, 종사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으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전남도는 밝혔다.

광주 방역당국은 학원, 교습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 시교유청, 5개 자치구가 구성한 합동 점검반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타디오페 등 4856곳을 점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렉스스피어 및 진국 베타딘, 아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official · 플렉스스피어: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